

“AI 기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서거석 교육감 “한두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구축 어려워 모두가 노력하면 기존보다 완성도 높은 플랫폼 구축 가능”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개정 건의안 등 8개 안건 처리

“전국 시·도교육청이 협의기구를 만들어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공동 구축합시다.” 서거석 교육감은 23일 전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총회에 참석해 AI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자는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통합 운영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AI 기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많다”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학습 플랫폼은 어느 한두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구축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모두 노력하면 기존보다 완성도 높은 플랫폼을 빨리 구축할 수 있고, 비용도 훨씬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교육감은 “교수학습 플랫폼 개발은 각 시·도교육청의 교수학습 데이터, 플랫폼 제작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특히 서 교육감이 이날 시·도교육청 협의기구를 통한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개발을 주장한 것은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온 힘을 쏟겠다는 전북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10대 핵심과제의 첫 번째로 꼽은 전북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등 현장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



전북도교육청 주관으로 23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에는 충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을 방문해 미래교육 현장을 살펴기도 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건의안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의 개선대책 마련’ 건의안

등 8개 안건이 처리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김명지 도의회 교육위원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이 참석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올해 새만금 일대에서 펼쳐지는 제25회 세계스카우

트 잼버리 대회에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24일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역사탐방에 나설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교 환경위생관리 기본방향 설명회 열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3일 창조미래 2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학교 환경위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학교 환경위생관리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도교육청 학교 환경위생관리 기본정책 방향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관리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학교 시설 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 개선△학교 소음방지 관리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관리 내실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기능 내실화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비 강화 등 6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학교 환경위생관리 기본방향을 안내했다. 이서기 문예재단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지원청 학교 환경위생관리 업무담당자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전주시체육회 건강증진 협약 체결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만수)은 23일 전주시체육회(회장 박지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주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약 2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수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생하며, 전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의 건강 및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전북이주여성상담센터 외국인 유학생 상담 공동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3일 국제교육관 접견실에서 전북이주여성상담소(사무소장 김동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도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체류상담, 행정노동상담, 법률상담, 의료상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혜금 국제교류원장은 “현재 전주대학교에는 중국 베트남 몽골 미얀마 등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면서 “최근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 늘고 있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해 우리 지역을 유학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이주여성상담소 김동준 소장은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우리 결의 외국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청운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이주여성상담소는 2020년 10월에 설립, 전북지역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상담을 9개국 언어로 지원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우리 학교 생태지도 만들기 운영 방향 안내

도교육청, 1개교 1지역 생태교육 전문강사 매칭 교육과정 등 평가 15명 뽑아... 오늘 워크숍 실시

학교 안의 생태공간을 학습의 장으로 확장시켜 생태탐구수업을 진행하는 민중 생태교육 전문가를 각 학교에 매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4일 생태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우리 학교 생태지도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1개교 1지역의 생태교육 전문강사를 매칭한다. 이 사업은 학교 운동장 및 주변 공간의 곤충 식물 등의 생태계를 관찰

하고 우리 학교의 생태지도 만드는 프로젝트로, 올해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4곳, 특수학교 1곳으로 총 23개교가 선정됐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산림전문가 국가자격증 양성 기관인 (사)전북의숲과 협업체 전문강사를 공개모집하고, 교육과정과 수업안을 평가해 최종 15명을 뽑았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15명의 생태교육 전문가가 ‘우리 학교 생태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의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생태탐구 수업 및 학교숲 교육의

실제와 교사-강사 간 협력수업 및 생태지도 만들기의 실제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후 생태교육 전문강사들은 대상 학교의 연구 학년(급)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 및 사전 식생 조사 후 담당 교사와 협력해 생태탐구 수업을 진행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정성환 과장은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의 환경 전문가와의 협력수업”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의 공간 속에서 관찰과 탐구를 통해 자연을 깊게 만나고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대체 단백질 식품 새 비즈니스모델 창출 방안 모색

전북대서 공동 심포지엄

기존 육류 제품을 대신할 대체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농업의 새 비즈니스모델 창출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돼 이목을 끌고 있다. 24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대체단백질식품 산학연관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에 따르면 이귀재 (사)농촌과 미

래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심포지엄에는 △리승용 전 농진청장 전북 민중기 농성방향 및 푸드테크 발전방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발효기능식품과 박찬순 실장의 정 부 푸드테크 추진방향 및 대체단백질 식품 연구현황,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생산기술개발과 박기도 과장의 대체단백질소재로서 콩 육성 및 노지스마트농업기술을 통한 대규모 생산, △유니레버코리아(주)의 글로벌 비건 트렌드 및 제품 개발 현황, △(주)수지링크의 국내 식물성대체시장 및 수지링크 대체육제품 기술현황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양오봉 총장과 김은덕 국회의원,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이정린 도의회 의원 등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유니레버코리아(주) (주)수지링크, 한토자원개발(주) (주)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소가 행사 전반을 주관한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총장직무대행 우병훈)는 23일 새누리관에서 미국 메리우드 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료 교환, 공동 연구 프로그램 회의, 및 워크숍 추진 북수 학위 프로그램 운영, 단기 어학 및 현장 체류 프로그램 상호 협력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David Kang MARYWOOD 대학 대외 부총장은 “전주비전대학교의 취업경쟁력은 국내대학 중 최고 수준이고, 글로벌 대학으로 입지를 탄탄히 구축

하고 있다”면서 “양 기관이 함께 북수 학위 프로그램과 현장 맞춤형 인재육성 및 현장실습 취업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우병훈 총장직무대행은 “양 대학이 학술분야, 어학프로그램, 산학협력 활동 분야 등 전 분야에서 더욱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23일 전주교대 총장실에서 강원근 퇴직교수의 발전기금 기탁식이 열렸다.

“작지만 크게 사용해달라”

강원근 전주교대 퇴직교수, 개교 100주년 맞아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대학에 큰 도움 되길”

전주교육대학교 강원근 퇴직교수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모교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23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이날 총장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기탁식에 주요 보직교수가 참석해 강원근 교수를 축하했다. 강원근 교수는 전주교대(2년제) 1회 졸업생으로 고려대 교육행정 석사, 동국대 교육행정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주교대(1981년)에서 2008년까지 27년 동안 초등교육과 교수로서 불철주야 초등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과 지도에 매진했다. 이날 기탁식에서 강원근 교수는 “학생으로서, 교수로서 평생 몸담

은 전주교대의 일원으로 개교 100주년을 축하하고, 작지만 크게 사용해서 대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최병연 교육대학원장은 “초등교육과 후배 교수로서 훌륭한 소식으로 다시 뵈게 돼 기쁘다”며 “대학 발전과 후학을 생각해 주는 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병준 총장은 “대학과 오랜 인연을 쌓은 교수님께서 보여준 애정과 관심이 대학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가치 있는 기부가 되도록 대학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 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 현장연계 미래선도인재양성 참여 연구팀 OT

국립군산대학교 실전문제연구단(단장 박성신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 부단장 전기공학과 안민철 교수)은 지난 22일 2023년도 현장연계 미래선도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30개 연구팀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OT)을 실시했다. 군산대학교는 2022년 ‘동서융합 스마트기술 실전문제연구단’으로 부산대, 부경대, 목포대와 함께 ‘현장연계 미래선도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2차년도 사업을 수행한다. 본 사업은 학부와 대학원 연계 연구팀의 산업계 문제해결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대학 교육 및 연구의 현장 지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2023년도 사업에 선정된 연구팀은 각각 스마트 부품소재, 스마트 시티, 스마트 해양생태, 스마트 에너지 분야의 4개 지정주제와 산업체 애로기술이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같은 자유주제의 연구를 수행한다. 오리엔테이션은 연구팀 운영에 대한 안내 후 팀별 연구주제 소개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참여 연구팀은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를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올해 군산대학교 실전문제연구단은 지역산업체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4팀, 컨소시엄 내 대학 간 연합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4팀, 다양한 전공 간 융합으로 주제를 발전시키는 11팀 등 총 30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